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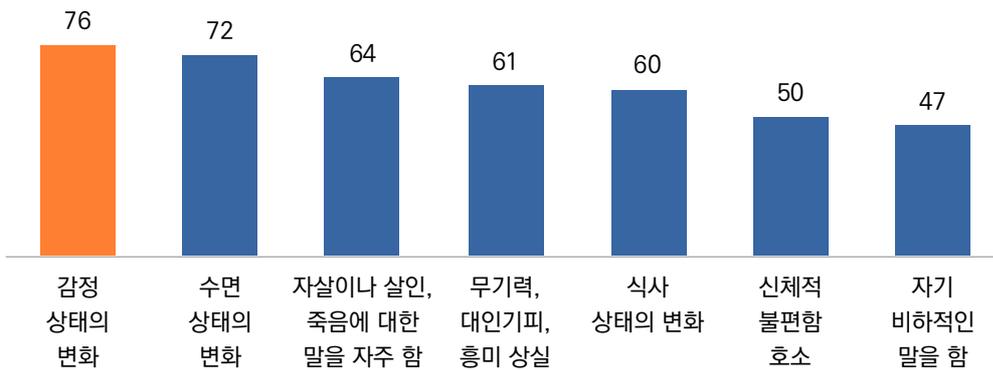


[자살사망자의 사망 전 징후 분석]

자살사망자 3명 중 2명, 자살 전 죽음에 대한 얘기 자주해!

-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(2015~2023) 진행한 자살자 유가족/지인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.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하고 자살사망자의 심리·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.
- 자살 경고신호는 자살사망자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언어·행동·정서적 변화 등의 징후를 의미하는데, 이를 취합해 보니 '감정 상태의 변화(76%)'가 가장 많았고, 그다음으로 '수면 상태의 변화' 72%, '자살이나 살인,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' 64% 순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자살사망자가 사망 전 보인 경고신호 (자살자 유가족/지인, 중복응답, 상위 7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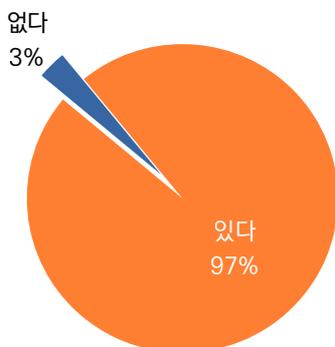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'자살사망자, 평균 4.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', 2024.08.28. (2015~2023 자살사망자 1,099명 심리부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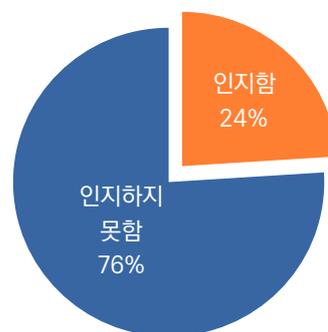
자살사망자 97%가 경고신호 보냈지만 주변 인지 24%에 불과!

-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 중 이러한 경고신호를 보였던 사망자는 전체의 97%로 대다수의 자살사망자가 사망 전 언어·행동·정서적 변화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.
- 하지만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인 자살사망자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4%에 불과했다.

[그림] 자살사망자의 사망 전 경고신호 여부 (자살자 유가족/지인)



[그림] 주변의 자살사망자 경고신호 인지 여부 (자살자 유가족/지인)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'자살사망자, 평균 4.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', 2024.08.28. (2015~2023 자살사망자 1,099명 심리부검)